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창조적 영성의 소유자

성경: 빌립보서 4장 10-20절

Tag: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7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4:10-20)

(창조적 영성)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강조한다.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우리들을 창조하셨다. 창조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능력이다. 사람들이 창조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된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적인** 창조적인 능력은 발견된다. 안타깝게 그들은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사람의 창조적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은 전지전능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

사람의 창조적 능력은 매우 한정적이다. 사람마다 차이도 크다. 한 사람이 모든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모든 면에 뛰어나기는 어렵다.

또 사람은 계발해야 비로소 본 실력이 발현된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다 한들 그 재능을 계발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사모하고 계발하시기 바란다. 순간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자.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과 불경한 자들의 창조적 능력의 발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첫째, 경건한 자들은 자신의 창조적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자기의 존재 자체로부터 그런 능력이 흘러나온다고 생각한다.

둘째, 경건한 자들은 창조적 능력의 이니시어티브(주도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는다. 이 두 번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2장에 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술객들, 박수(남자 무속인), 점장이, 술사들을 불렀다.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

그리고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와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머뭇거리며, 도데체 무슨 꿈을 꾸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화를 내면서,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내지 않으면 너희들의 몸을 반토막 내고, 너희의 집은 쓰레기더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가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내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이자들의 재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그들은 모두 죽게 되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일로 잡혀가게 되었다. 다니엘은 시위대 장군 아리옥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묻고, 왕에게 가서 답을 드리겠으니 시간을 조금 달라고 전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 세 친구들을 불러들였고, 그들은 기도하였다. 그러자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고,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니엘은 찬송하였다.

23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어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단2:23)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왕이 꾸는 꿈을 잘 설명하고, 해석까지 잘 해주었다. 왕은 다니엘에게 높은 지위를 내리고, 세 친구들에게도 그리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적 영성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셋째, 경건한 자들은 창조적 영성을 사용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정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건강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직업활동을 한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한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도 그에 상당한 댓가를 받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경건치 않는 자들은 재능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우선 사용한다. 그래서 속이려고 하고, 자기가 더 많은 돈을 챙겨가려고 애를 쓰는데 모든 재능을 사용한다. 그러다 일도 망가지고 세상도 망가진다.

(경건치 않는 자들의 늪, 돈)

돈이 모든 경제적 총화이기 때문에 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돈만 있으면 모든 근심도 사라질 것 같고,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 모두 다 할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돈이 많으면 책임도 많아진다. 두려움도 많아진다. 돈 쓸 일도 많아진다. 많은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속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품은 칼을 언제 꺼낼지 모른다. 제일 믿었던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래서 재벌가나 연예인들이 이혼이 잦고, 사기결혼으로 인생을 힘겹게 살게 된다.(사실은 알려지기 쉬워서 그렇고 대체적으로 삶들이 다 그렇다.)

그렇다고 적당히 돈벌며 살겠다고 걱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 인플레이도 한 몫 한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미국에서 시작된 프라임 모

기지론 사태를 보면 은행이나 주식이나 정부나 그 누구든 믿을 수 없는 집단일 뿐이다. 이리 저리 생각을 돌리다 보면, 그래도 믿을 것은 돈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풀리지 않는 총체적 난관 앞에 직면해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현실적 실존 앞에서 도망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실존적 인간은 스스로 고군분투 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인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신의 계시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있다.

스스로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신의 계시를 받는 것도 만만치 않다.(거짓 종교가 많이 때문)

결국 스스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군중의 뜻에 따르고, 신의 계시를 믿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간다.

신의 계시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 기도하면서 그 뜻에 순복한다. 말씀을 묵상하며 계시를 탐색한다. 하나님의 가르침 대로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돈에 끌려가지 않고, 돈을 활용하려고 한다.

(바울의 삶)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모범답안을 보게 된다.

바울은 전도여행에 삶을 온전히 헌신하였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일터사도였다. 일하면서 전도하였다.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바울의 삶에 동참한 훌륭한 교회였다. 그러나 한동안 사정이 있어서 경제적 원조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금 기회가 생겨서 원조를 하게 되어, 바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짝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오해할 것이 우려되어 자신은 결코 궁핍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왜냐면 정작 그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은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그 불편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보나 집사?)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경제적 비결이 있다고 고백한다. 그 비결은 일체의 풍부와 궁핍에도 대처할 줄 아는 것이다.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그 비결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였다.

하나님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바울에게 적당한 능력을 주셨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 순종했고, 그때마다 문제들은 즉시 해결되었다.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내가 하고자 한다면,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자유의 주관자시다. 스스로 자유로운 분이시며, 나의 자유의지까지 존중하신다. 내가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따라 나를 도우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정답은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군중을 의지하지 않고, 이단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경건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창조적 영성을 키울 수 있는 받을 일구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 추수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창조적 영성이 열매 맺히게 하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신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구국의 영성 성경: 느헤미야 1장

Tag:

느헤미야 1장

3절. 큰 환란과 능욕을 당하는 유대인.

-우상숭배로 나라는 망하고, 집권층은 포로로, 하층민은 환란과 능욕을 당하게 됨.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겪게 됨.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인근 나라에 가서 능욕을 당하게 됨.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인근 나라에 가서 능욕을 당함.

-자주 국방을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자들의 운명.

-베트남이 그랬고, 아프가니스탄이 그랬고, 조선이 그랬다.

-북한과 남한이 지금 그렇다.

-남한은? 자주국방을 일구어냈고, 동맹도 든든하다. 그러나 간첩을 막지는 못했다. 베트남, 아프가니스탄도 간첩 때문에 망함.

-그래도 우리에게 113이 남아 있기에 아직은 간첩들이 활개는 안 됨.

-핵심 문제에 집중;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탐. 기초적인 치안 부재.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겪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질이 피폐해진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짐.

4절. 울고, 수일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

-하나님의 자비를 기도함.

-동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음.

-주의 성산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쓰라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

5절.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간구함.

6절~7절. 구체적으로 회개함.

8절.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으로 인한 징계임을 확실히 함. 원망하지 않음. 남 탓하지 않음.

9절.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예언도 잊지 않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됨.

현재 우리가 기도해야 함.